

전후 현대시에 나타난 정치적 무의식과 기호적 주체 연구*

- 서정주와 김춘수의 경우

이민호**

【 차 례 】

- I. 머리말
- II. 증상적 기호와 주체의 유토피아적 이념소
- III. 서정주의 경우 : ‘소리공포’의 증상적 기호
- IV. 김춘수의 경우 : ‘환지공포’의 증상적 기호
- V. 맺음말

국문초록

전후 현대시의 특징은 ‘상실과 회복’이라는 두 기의(記意) 속에 양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후 현대시에 나타난 이질적 양태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전후 현대시가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기표(記標)는 주체의 분열과 공포, 유토피아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무의식의 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외상적 기표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의미가 생성되는지 기호학적 실천을 요구한다. 이에 본고는 텍스트의 형식 분석과 더불어 시적 주체와 독자가 공유하는 동시대적 문제를 조명하였다. 더불어 개인사,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상징 질서, 정치적 무의식, 개인적 무의식 등을 동시에 탐구하였다.

전후의 주체는 ‘욕망하는 주체’이다. 그리고 ‘잃어버린 대상(object a)’을 찾아 끝없는 미로를 헤매는 운명으로 환상구조(環狀構造)를 이룬다. 이때 잃어버린 대상은 무의식 속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미가 대치되는 현상을 추적하면 드러나게 된다. 전후 이데올로기는 주체에게 가해지는 공포로서 ‘증상적 기호’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의미화 과정은 기표 ‘식민주의’와 기표 ‘전쟁’이 은유적 대치과정을 통해 나타나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금조교수

고, 두 번째 의미화 과정은 기표 ‘전쟁’과 기표 ‘전후 이데올로기’와의 환유적 치환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서정주의 ‘소리공포’와 김춘수의 ‘환지공포’라는 증상적 기호는 전후 현대시에 전제될 수밖에 없는 주체 상실의 두 가지 기표, 즉 ‘식민주의’ 기표와 ‘전쟁’의 기표가 의미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 그러므로 주체가 겪고 있는 ‘소리공포’의 증상적 기호는 식민주의와 전쟁 경험이 만들어낸 사후적 병적 징후라 할 수 있다.

전후 서정주와 김춘수의 시에 자리하고 있는 ‘가족주의’, ‘자유주의’는 식민지 시대 혼종화된 주체와 해체된 주체의 무의식을 환상구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당대에 스스로를 희생의 중심에 놓고 과거의 행적을 기만하려 했던 사회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후 현대시의 상실과 회복의 기의는 가족주의와 자유주의 담론에 함몰된 비역사적 무의식의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열쇠어 : 욕망하는 주체, 잃어버린 대상, 환상구조, 무의식, 증상적 기호, 식민주의, 전쟁, 소리공포, 환지공포, 가족주의, 자유주의

I. 머리말

해방 후 한국문학은 넓게는 분단의 소재사요 좁게는 한국전쟁의 소재사다. 60년대와 70년대로 이어지는 한국 문학 또한 대부분이 분단이라는 에피포르(epiphor)의 서로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그 만큼 한국 전쟁은 과거완료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며 또한 미래완료형이다.¹⁾ 그러므로 해방과 분단 그리고 전쟁은 현대문학이 강박화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적 상황이며, 거기에 대응하는 초극적인 삶의 광채를 탐조하는 소망의 인간 벽화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전후 문학이라 할 수 있다.²⁾ 특히 한국 전쟁은 해방 후 한국시의 양상을 바꾸는 데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며, 한국시의 현대적 성격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³⁾

1) 박철희, 「통일을 위한 문학-분단의 주제론」, 『자하』 2월호, 상명대학교, 1986, 77쪽.

2)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11-19쪽.

3) 박철희, 「한국시와 고향상실」, 『굴림문학』 제4호, 굴림문학회, 1995, 133쪽.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는 전후 현대시의 치환적 반복성, 강박성, 역사성, 계기성, 욕망에 주목하고자 한다. 기존논의는 이러한 시적 양상을 전쟁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는 기의 찾기에 골몰한다. 식민지 시대 시의 서정성과는 판이하게 다른 기표의 의미를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공포와 굶주림 속에서도 생존을 위한 한국인들의 처절한 자기극복의 몸부림⁴⁾’으로 해석하거나, 혼란과 상처를 극복해야하는 시대적 과제를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한 것으로 ‘인간본연의 서정을 회복하려는 경향⁵⁾’으로 해석한다. 자아의 회복의지와 함께 전통과의 부정과 단절 속에서 ‘폐허의식’⁶⁾이라는 상실의 기의를 언급하기도 한다.

이처럼 전후 현대시의 특질은 ‘상실과 회복’이라는 두 기의 속에 양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의미는 라캉의 말처럼 미끄러져 다시 원래의 기표로 환원하는 공허함을 노정한다. 이 왜소한 기의 찾기에서 전후 시가 보이는 혼중성 혹은 이접성, 이질성의 양태⁷⁾는 역사성을 상실한 채 불확정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처럼 전후 현대시가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기표들은 주체의 분열과 공포, 유토피아적 욕망을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무의식의 구조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쟁의 외상적 기표들이 무슨 의미인가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의미가 생성되는지 메타적 시각에서 탐구함으로써 언어를 가로질러 ‘복수적인 기호학적 실천’⁸⁾을 요구한다. 이는 전후 현대시 연구에서 내재적 연구와 외재적 연구의 입장 중 어느 한쪽의

4) 최동호, 「1950년대의 시적 흐름과 정신사적 의의」, 김윤식·김우중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1995, 313쪽.

5) 윤여탁, 「한국전쟁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 김은전·김용직 외, 『한국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 시학, 1991, 416-432쪽.

6) 이남호, 「1950년대와 전후세대 시인들의 성격」,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11-27쪽.

7) 전통은 현대와 접속하고, 동양은 서양과 이상은 환상과 접속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자기부정이며, 실존적으로는 전쟁이 가져온 정신적 외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억압되고, 코드화되며, 차단당하는 삶의 흐름을 해방시키는 방법’으로서의 시쓰기이다.(이민호, 「전후 ‘전통서정시’의 이접성 연구-이수복·이원섭의 시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12호, 시학과 언어학회, 2006, 134쪽.

8) 줄리아 크리스테마, 『세미오티케』, 서민원 역, 동문선, 2005, 69쪽.

지배적 주장에 서기 보다는 텍스트 형식의 분석과 더불어 시적 주체와 독자가 공유하는 동시대적 문제와 더불어 개인사, 가족 구조, 사회 문화적 상징 질서, 정치적 무의식, 개인적 무의식 등을 동시에 탐구⁹⁾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증상적 기호와 주체의 유토피아적 이념소

한국 전쟁은 주체¹⁰⁾의 소외구조를 형성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과 전후에 강제된 전후 이데올로기의 간극은 주체를 사라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체가 겪은 전쟁의 역사성은 사라지고 분단으로 배태된 상징적 이데올로기가 출현함으로써 전쟁의 실존적 의미는 타살되고 만다. 그러나 그 타살의 메타포 속에서 전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주체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것은 정치적이다. 소위 반공이라는 전후 이데올로기, 즉 아버지의 언어는 주체를 해체시킨다. 역사의 죽음과 전후 이데올로기라는 상징의 출현은 주체 속에 욕망의 영속화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전후의 주체 또한 ‘욕망하는 주체’이다. 이렇게 전후에 탄생한 욕망하는 주체는 일반적인 모든 주체가 그러하듯 ‘잃어버린 대상(objet a)’을 찾아 끝없는 미로를 헤매는 운명으로 환상구조를 이룬다. 즉 $\$ \diamond a$ ($\$$: 분열된 주체, a : 잃어버린 대상).

이때 전후 주체의 잃어버린 대상은 무의식 속에 기록되어 의미의 대치화

9) 이러한 입장에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적 언어의 단일 의미 배제, 의미의 불안정성과 의미 작용, 상징적 규범에 대한 위반, 통일화된 일관성이 아닌 탈중심화의 전략들, 타자성과 대화, 로고스 중심주의적 이항대립을 뒤집는 억압의 사고로부터 해방을 꿈꾸는 시적 전략 등을 탐구하는 것이다.(김승희, 『코라 기호학과 한국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37-38쪽 참고).

10) 이때의 주체는 ‘말하는 주체’로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독자와 소통하는 기호적 주체를 말한다. 라캉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망 속에 살도록 처형된 주체를 말하며, 프레드릭 제임슨에 경우 언어의 감옥에 갇힌 주체를 말한다.(박찬부, 『라캉의 기호적 주체론』, 『기호학연구』 6권, 1999, 93쪽 참고).

현상을 추적함으로써 드러나게 된다. 전후 이데올로기는 주체에게 가해지는 공포로서 ‘도르의 임상보고서¹¹⁾’에서 말하는 ‘증상적 기호’라 할 수 있다. 이 분석 사례는 한 젊은 여성의 ‘가족 공포증’에 관한 것이다.

여자 Y에게 어느날 갑자기 가족에 대한 공포증이 발발했다. 처음에는 작은 가족 제품에 국한되었으나 점점 가족 옷, 가족 구두 등 모든 가족 관련 대상에 대한 공포증으로 확산되어갔다. 물론 본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임상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기억과 연상은 이러했다. 어렸을 때 혼자서 자기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며 수음을 하고 있었는데어머니가 끼어들어 “만약 네가 그런 더러운 짓을 계속하면 너의 손을 싹둑 잘라 악어의 입에 처넣을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협했다. 그후 그녀는 동물원에 가서 악어들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턱을 거칠게 여닫는 광경을 보고 겁에 질린다. 그로부터 몇 년 후 Y는 학교에서 악어의 표피가 가족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5세 생일에 어머니가 그녀에게 가족 핸드백을 선물했을 때 가족 공포증이 촉발되었던 것이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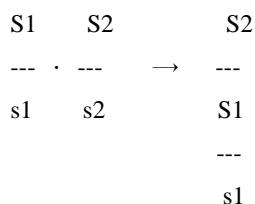
여기에는 어머니의 거세위협과 악어와의 무서운 경험이라는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존재한다. 이 두 사건이 라캉이 말하는 의미화의 대치과정을 거치면서 ‘가족 공포증’이라는 증상적 기호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분석 사례를 전후 현대시에 대입한다면 전후 주체 역시 두 가지 사건과 연결된다. ‘식민체험’과 ‘전쟁체험’이다. 이 두 사건은 역사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전후 현대시의 저변에 자리하고 있는 공포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우선 무서운 사건으로 경험한 ‘한국전쟁’이다. 전쟁의 공포는 ‘전후 이데올로기 공포증’이라는 증상적 기호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전후 이데올로기 공포는 상실과 결핍을 전제로 한 강압적 억압이다. 주체는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를 대하는 순간 공포에 휩싸이게 된다. 현실에 대해 어떠한 태도도 취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한 표명자체가 ‘전쟁’을

11) 위의 글, 110-126쪽 참고.

12) 위의 글, 110쪽.

촉발할 것이라는 자기검열과 그것을 암시하는 정치적 분위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포는 ‘한국전쟁’ 체험 이전의 또 하나의 사건에서 연유한다. 그것은 일제가 주체에게 가했던 식민주의적 거세의 위협이다. 주체가 겪었던 상실의 경험은 전쟁을 통해 강화되었으며 전후 이데올로기로 의미화되어 증상적 기호로 드러난 것이다. 첫 번째 의미화 과정은 기표 ‘일제식민주의’와 기표 ‘한국전쟁’이 은유적 대치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두 번째 의미화 과정은 기표 ‘한국전쟁’과 기표 ‘전후 이데올로기’와의 환유적 치환 과정을 통해 나타난다.

이 과정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주체가 겪었던 일제 강점기 식민주의 경험은 하나의 정신적 외상(trauma)으로서 전후의 이데올로기 공포증의 원인자로 작용한다. 이 사건을 원초적 기표 S1이라 하면 일제에 의한 식민주의적 거세 위협은 라캉적 기호 S1/s1로 나타낼 수 있다. 이후 식민지 체험은 ‘한국전쟁’의 공포와 연결된다. 따라서 ‘한국전쟁’은 대항적 기표 S2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 한국전쟁의 공포증은 제2의 라캉적 기호 S2/s2로 되어 원초적 기표와 연상적 관계 속에서 의미화의 대치현상을 일으킨다. 이를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이 도표는 ‘일제식민주의의 거세위협’이라는 기표(S1)가 은유적 대치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전쟁의 공포’라는 기표(S2)가 전면에서 드러나고 그 기의(s2)는 잠정적으로 사라진 반면 그 자리에 식민주의 기표와 기의(S1/s1)가 대신 들어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식민주의 기호는 도표에서 가름대 밑에 존재함으로써 구조상 의미계에서 억압되어 무의식계에 있음

을 암시하고 있다. 이때 ‘한국전쟁’의 사전적 의미인 ‘민족상잔’의 기의는 상실되고 ‘식민주의’라는 새로운 의미를 기의로 취하게 된다. 이처럼 전후 현대사에서 ‘전쟁’이라는 기호는 직설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 외연적 의미와 내포적 의미로 동시에 사용된다. 즉 주체의 의식적 담론에서 전쟁은 사전적 의미를 지칭하는 반면, 무의식적 차원에서는 이 동일한 기호가 다르게 입력된다.

이때 주체는 개인이 아니다. 그것은 주체를 ‘고통 받는 사람’으로서 설정하는 순간 텍스트 해석은 단지 ‘치료행위’로 환원되기 때문이다¹³⁾. 아니면 도덕적 판단이 된다. 즉 기존논의는 전후 현대시의 분석에 있어 주체 개념을 외부에 존재하는 이미지, 즉 또 다른 자아로서 고통 받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슬픔과 죄의식과 허무를 치유가 필요한 상처로 치부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이는 “언제나 이미 사회적 주체가 아닌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¹⁴⁾”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후 현대시에 나타나는 개인적 경험을 역사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는 개별적 작품으로부터 그것이 출현한 더 큰 사회적 리얼리티로 비평적 관점을 확대하는 것이다.¹⁵⁾

제3세계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민족 알레고리의 형식으로 정치적 차원을 투사하고 있다. 심지어 사적이고 리비도의 역동성이 적절하게 투여된 텍스트처럼 보일지라도 그렇다.¹⁶⁾ 그러므로 무의식은 정치적이다. 다시 말해 개인적 심리와 연관되어서 억압된 채 드러나는 욕망이나 충동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집단무의식’¹⁷⁾이다. 본고는 이러한 차원에서 텍스트 속의 ‘이념소(ideologeme)’¹⁸⁾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념소는 사회적

13) 아니 스타브라카키스, 『라캉과 정치』, 이병주 역, 은행나무, 2006, 99쪽.

14) 위의 책, 101쪽.

15) 손 호머, 『프레드릭 제임슨』, 이택광 역, 문화과학사, 2002, 36쪽, 60쪽.

16) 위의 책, 112쪽.

17) 프레드릭 제임슨이 말한 정치적 무의식, 즉 ‘집단무의식’은 융과 같은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무의식은 신화적 원형의 저장소가 아니라 발터 벤야민이 말한 역사의 악몽과 가깝기 때문이다(위의 책, 89-90쪽 참고).

18) 위의 책, 83-86쪽 참고.

계급이 내재한 본질적으로 서로 적대적인 집단 담론간의 최소 이해 단위이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슬로건일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텍스트의 형식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텍스트의 언어 구조 속에 내재한 것이다. 첫 번째 텍스트 차원에서 텍스트가 하나의 규정, 말하자면 텍스트의 형식적 무늬와 구조에 내재적인, 실재적 사회 모순에 대한 상상적 해결책으로 보인다면, 이 두 번째 차원은 계급 담론의 랑그에 대해서 텍스트를 빼를 또는 개별적 발화로 취급한다. 이처럼 본고의 대상 텍스트는 계급담론을 강조함으로써 해게모니 담론에 독자가 귀를 기울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배 담론들에 대립하고 지배받음으로써 침묵을 강요받고 억압당하는 목소리의 복원에 대한 시도를 하고 있다.

텍스트에 내재된 이념소의 가치는 신념 체계 또는 추상 가치의 의미에서 유사 이념으로서 표현되거나 또는 일종의 주류 서사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서로 대립적 계급들로 존재하는 집합적 특성에 관한 최종적 계급의 환상으로서 출현한다. 텍스트가 보이고 있는 유토피아적 환상 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서정주와 김춘수의 전후 시에 나타난 증상적 기호를 분석함으로써 상실과 회복의 이념소 너머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 무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서정주와 김춘수는 전통적 서정성과 현실 해체의 양극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담론의 층위에서 동일성을 보인다. 서정주의 경우 상상적 통합의 인식을 통해 전쟁과 분단의 현실적 갈등을 무마하고 봉합하려 한다. 즉 “2차적 나르시시즘을 통해 분열되고 파편화된 세계를 통합된 세계로 오인하고, 그 오인은 세계가 통합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혹은 세계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당대의 봉합이데올로기의 추인을 받으면서 실재적인 것으로 인식된다.¹⁹⁾” 이와 동일한 선상에서 김춘수도 현실의 문제를 관념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무마하려는 태도를 취한다.

19) 정형근, 「서정주 시 연구: 판타지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69쪽.

“김춘수의 이러한 인식은 시적 주체로서의 개인의식과 실존을 강조한다. 시와 삶, 문학과 현실의 관계를 추상화하는 사변성으로 특징짓는 그의 시적 인식은 나아가 탈역사주의적인 사고, ‘구원’이라는 종교적인 의미 같은 문학, 그리고 신화주의적 전망으로 귀결된다.”²⁰⁾ 이러한 현상은 전후시의 정치적 무의식을 동일하게 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후시를 바라보는 단일한 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Ⅲ. 서정주의 경우 : ‘소리공포’의 증상적 기호

나는 6.25 사변 이래 늘 내 의식에 직접 접촉해 와서 치열한 공격과 협박을 퍼부어 온 정체불명의 공중의 소리 속에 끊임없는 불안을 겪어 가야만 했다. “저 문둥이, 저 흉악한 문둥이, 네가 쓴 시 ‘문둥이’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흉악한가. 여러분들 저 서정주라는 놈하고”²¹⁾

이 증언은 서정주가 한국 전쟁이후 발작되었던 공포증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스스로 과대망상에 빠진 공산당 오열, 문둥이, 살인자, 근친강간, 간통, 횡령 등의 혐의 때문에 자살까지 감행한다.²²⁾ 이처럼 서정주를 공포에 밀어 넣었던 정체불명의 소리는 전후 이데올로기의 상징체계로서 주체를 해체시키는 ‘아버지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체된 주체 서정주는 욕망하는 주체가 되어 잃어버린 대상을 찾아 환상 구조를 이룬다.

꽃밭은 그향기만으로 불진대 漢江水나 洛東江上流와도같은 隆盛한 흐름

20) 이은정, 『현대시학의 두 구도-김춘수와 김수영』, 소명출판, 1999, 118쪽.

21) 서정주, 「미당자서전 2」, 『서정주전집 5』, 민음사, 1994, 223-224쪽.

22) “이 무렵 미당은 실어증과 헛간을 보는 환각증세로 신음하다가 부산으로 후송되어 청마의 집에서 요양하게 된다.”(김학동, 『서정주 평전』, 새문사, 2011, 79쪽).

이다. 그러나 그 낱낱의 얼굴들로 볼진대 우리 조카딸년들이나 그 조카딸년들의 친구들의 웃음판과도 같은 굉장히 질겨운 웃음판이다.

세상에 이렇게도 타고난 기쁨을 찬란히 터트리는 몸둥아리들이 또 어디 있는가.

—중략—

하여간 이 한나도 서러울것이 없는것들옆에서, 또 이것들을 서러워하는 微物하다도 없는곳에서, 우리는 서빨리 우리 어린것들에게 서름같은 걸 가르치지말일이다. 저것들을 祝福하는 때까지의 어느것, 비비새의 어느것, 벌 나비의 어느것, 또는 저것들의 꽃봉오리와 꽃송어리의 어느 것에 대체 우리가 행용 나죽히 서로 주고받는 슬픔이란 것이 깃들이어 있단말인가.

—하략—

- 「上里果園」 부분

이 시에서 분열된 주체(\$)는 잃어버린 대상(a)과 만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쌍을 이루어 의미를 드러내는 듯하다.

흉악한 몸 : 찬란한 몸 = 슬픔 : 기쁨

그래서 욕망하는 주체(흉악한 몸)은 슬픔의 기의를 기쁨으로 대체할 때 주체(찬란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이 실재가 될 수 없는 것은 주체를 해체하는 ‘소리의 공포’라는 증상적 기호가 담고 있는 기의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주체는 자살까지 감행할 정도로 극도의 정신이상 상태에 빠진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것처럼 「상리과원」의 기표들은 전쟁의 ‘슬픔’이라는 기의를 ‘기쁨’으로 대체하여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은 상징계적 차원에서 강제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이 당시 서정주의 일련의 작품들이 보이는 특정 이데올로기가 그러한 환상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풀리는 한강가에서」에서도 ‘한 평생 울고 가려했’던 시인의 그 슬픔에 대한 나르시시즘을 무너뜨리고 잃어버린 대상, ‘میم돌레’의 환타지를 확인하게

끔 하는 ‘가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담론으로 보여주고 있다. 서정주는 초기 『화사집』과 『귀족도』에서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분열적인 개인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즉 전근대적인 유교질서와 가족주의를 거부한다. 이 분열된 주체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적 이데올로기에 안주하려 한다. 이는 그가 거부했던 전근대적 질서로의 퇴행이라 할 수 있다. 「상리과원」과 같은 일련의 시편에서 전면적으로 표명된 담론은 전형적인 ‘가족주의’의 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이때 가족주의는 집합주의적 관점에서 가족집단의 결속을 중시하는 신념이다. 가족은 일종의 사회조직처럼 모든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 지속, 기능과 관련돼 결정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족의 단결, 영속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 가족결속력을 중시한다.²³⁾ 이는 전후 한국사회의 전형성과 일치한다.

결국 ‘소리의 공포’라는 증상적 기호는 앞서 언급했듯이 전후 현대시에 전제될 수밖에 없는 주체 상실의 두 가지 기표, 즉 ‘식민주의’ 기표와 ‘전쟁’의 기표가 의미화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서정주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며, 모두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麝香 薄荷의 뒤안길이다.

아름다움 배암...

을마나 크다란 슬픔으로 태여났기에, 저리도 징그러운 몸둥아리나

꽃다님 같다.

너의 할아버지가 이브를 꼬여내든 達辯의 헛바닥이

소리없는채 널롱그리는 붉은 아가리로

푸른 하늘이다. ...물어뜯어라. 원통히 무리뜯어,

다라나거라. 저놈의 대가리!

23) 박동희,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2004, 98-99쪽 참조.

돌 팔매를 쏘면서, 쏘면서, 麝香 防草入길
 저놈의 뒤를 따르는 것은
 우리 할아버지의 안해가 이브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石油 먹은듯…石油 먹은듯…가쁜 숨결이야

바늘에 꼬여 두를까부다. 꽃다님보단도 아름다운 빛…

크레오파투라의 피먹은양 붉게 타오르는 고훈 입설이다…숨여라! 배암.

우리순네는 스물난 색시, 고양이같이 고훈 입설…숨여라! 배암.

- 「花蛇」 전문

이 시는 꽃 이미지와 뱀 이미지의 상호침투를 통해 식민지 시대 주체가 갖는 혼종화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주체를 말해 주는 기표는 ‘꽃다님’이다. 욕망하는 주체로서 서정주의 전이된 시적 주체라 할 수 있다. 이제 꽃은 수직적 자세에서 하늘을 향했던 상승의 고고한 이미지가 사라지고 수평적 자세를 취함으로써 두 가지 자질을 획득하게 된다. 슬픔과 징그러움이 그것이다. ‘슬픔’은 주체의 과거를, ‘징그러움’은 현재를 담고 있는 기표다. 이들 기표의 통합이 ‘꽃다님’이며, 그것은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주체를 고스란히 담는 기표다. 이때 주체가 겪는 ‘돌팔매질’은 서정주 스스로가 행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후 나타나는 ‘소리 공포증’의 원인자로 작용한다. 이것을 ‘원초적 기표’ S1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S1

--- (기표 S1 : 돌팔매질, 기의 s1: 추방)

s1

이와 같은 식민지 시대 주체가 겪었던 추방의 위협은 슬픔과 징그러움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한국 전쟁의 슬픔과 추악함으로 연결된다. 이 전쟁의 상처를 ‘대항적 기표’ S2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의 공포는 S2/s2로 기호화되어 원초적 기표와 연상적 관계 속에 다음과 같이 의미화 된다.

$$\begin{array}{ccc} S1 & S2 & S2 \\ --- & \cdot \quad --- & \rightarrow \quad --- \\ s1 & s2 & S1 \\ & & --- \\ & & s1 \end{array}$$

이때 기표 ‘전쟁(S2)’은 은유화되어 사전적 의미의 기의를 상실하고 ‘추방’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기의로 취하게 된다. 이는 주체가 현실에서 겪는 전쟁의 공포와는 달리 무의식 속에서 ‘추방’이 강제화될 때 전쟁 공포증을 앓게 됨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체가 겪고 있는 ‘소리공포’의 증상적 기호는 식민지와 전쟁 경험이 만들어낸 사후적 병적 징후라 할 수 있다. 이때 전쟁과 소리의 공포는 환유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제 ‘소리공포’라는 제3의 사건을 S3/s3로 기호화 하여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rray}{ccc} S2 & S3 & S3(\cdot \cdot S2) \\ --- & \cdot \quad --- & \rightarrow \quad ----- \\ s2 & s3 & s2 \end{array}$$

‘소리공포증’에 시달리는 주체는 ‘소리’라는 제3의 기표가 ‘전쟁’이라는 제2의 기표와 환유적 대치과정을 겪으면서 전쟁의 기의s2는 보유하고 있으나 ‘소리’의 기의s3는 상실한 상태다. 이는 주체가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전적 의미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왜 ‘소리’를 무서워하는가 그 공포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즉 그것은 주체의 무의식 속에 반복되고 있는 ‘추방’의 공포가 원인으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전후 서정주의 시에 자리하고 있는 ‘가족주의’는 식민지시대 혼종화된 주체의 무의식을 환상구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당대에 스스로를 희생의 중심에 놓고 과거의 행적을 기만하려 했던 사회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IV. 김춘수의 경우 : ‘환지공포’의 증상적 기호

나는 예수를 두려워하고 소크라테스를 두려워하고 정몽주를 두려워한다. 이념 때문에 이스의 생을 버린 사람들을 나는 두려워한다. 위의 세 분은 먼 과거의 사람들이니까 뭐라고 할까, 시간의 안개가 그들 주위에 짙게 깔려 있어 그 공포심이 얼마만큼은 그래도 옅어지고 있다. 그러나 1942년에 죽은 한 여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생생하다. …<중략>…그의 양심을, 그리고 그녀의 의지를—그것들은 나에게 공포를 안겨 준다.²⁴⁾

이 글은 김춘수의 수필 중 일부다. ‘베라 피그넬’이라는 무정부주의자 여성 혁명가에 대해 소회를 담은 글이다. 베라 피그넬은 러시아의 시랴셀 베르그 요새감옥에서 21년을 살았던 여인이다. 인민을 위한 의지를 꺾지 않은 신념 때문에 청춘을 감옥에서 지낸 유폐된 삶에 김춘수는 자신을 겹쳐 놓는다. 실제 김춘수는 일본 유학시절 도쿄의 세다가야 경찰서에 구금되어 고초를 겪는다.

십자가에 못박힌 한 사람은
불면의 밤, 왜 모든 기억을 나에게 강요하는가,

24) 김춘수, 「베라 피그넬」, 『김춘수전집 3-수필』, 문장, 1983, 77-78쪽.

나는 스물두 살이었다.
 대학생이었다.
 일본 동경 세다가야서(署) 감방에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수감되어 있었다
 어느날, 내 목구멍에서
 창자를 비비 꼬는 소리가 새어 나왔다.
 <어머니, 난 살고 싶어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그 소리는 까마득한 어디서,
 내 것이 아니면서, 내 것이면서……
 나는 콩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고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누가 나를 우롱하였을가,
 나의 치욕은 살고 싶다는 데에서부터 시작 되었을가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내던진 죽음은
 죽음에 떠는

-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부분

위의 시는 1959년 백자사에서 출간한 시집 『꽃의 소묘』에 실린다.
 그런데 같은 해 춘조사에서 발행된 시집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에서 이 부분은 삭제된다. 베라 피그넬의 삶과 견주어 볼 때 삭제행위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공포의 내용은 부끄러움 같은 것일 수도 있다.
 베라 피그넬이 21년의 오랜 유폐생활 속에서도 이념적 뜻을 굽히지 않은데
 반해 김춘수는 <어머니, 난 살고 싶어요!>라며 나약하게 삶을 구걸한다.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의 개작 과정에서 삭제된 부분이 자신
 의 내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점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할 수
 있게 해준다. 김춘수는 자신의 나약함과 무능력함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을
 숨김으로써 얼룩과도 같은 상처를 없애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산문이나
 시론을 통해 끊임없이 밝히듯이 이 고통의 기억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힌
 다. 억압된 것이 귀환하듯, 아무리 배제하려 해도 따라 다닌 것이다.
 아무리 지워버리려 해도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온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은 이것이 김춘수의 무의식의 가장 밑바닥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할 터이다.²⁵⁾” 그런데 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의 무의식이 한국전쟁의 공포와 연결되는 지점은 불명확하다. 더군다나 이러한 감성적 태도는 적어도 지사적 면모의 일환으로서 운동주의 경우에 적합하지 김춘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김춘수가 의도적으로 역사와 이념으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근거로서는 소박하다. 그러므로 김춘수를 해체시킨 공포를 더 깊이 드러내 보아야 한다. 서정주처럼 발작적 증세로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아예 외면하고 삭제하려는 것은 기억하기 싫지 않은 공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죽음에 준하는 공포임이 틀림없다. 식민지 시절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해체된 주체 김춘수는 욕망하는 주체가 되어 잃어버린 대상을 찾는다. 그것은 전후에 ‘꽃’으로 구체화된다.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
 나의 손이 닿으면 너는
 未知의 까마득한 어둠이 된다.
 存在의 흔들리는 가지 끝에서
 너는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진다.
 눈시울에 젖어드는 이 無名의 어둠에
 追憶의 한 접시 불을 밝히고
 나는 한밤내 운다.
 나의 울음은 차츰 아닌 밤 돌개바람이 되어
 탑을 흔들다가
 돌에까지 스미면 金이 될 것이다.
 ……얼굴을 가리운 나의 新婦여,

-「꽃을 위한 序詩」 전문

이 시에서 분열된 주체(\$)는 잃어버린 대상(a)과 만난다. 그것은

25) 전병준, 「김춘수 시의 변화에서 역사와 사회가 지니는 의미 연구」, 『한국문학과이론비평』 58호, 한국문학회이론과비평학회, 2013, 180쪽.

다음과 같이 쌍을 이루어 의미를 담는다.

위험한 짐승 ; 얼굴가린 신부 = 어둠 : 빛

욕망하는 주체(위험한 짐승)는 어둠의 기의를 빛으로 대체할 때 신부처럼 숭고한 주체로 변화될 수 있다는 환상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욕망은 실재가 될 수 없다. 주체를 어둠 속에 유폐시킨 공포의 증상적 기호가 담고 있는 기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전쟁의 ‘위험’이라는 기표가 우리 삶을 ‘어둠’에 빠뜨릴 것이라는 기의를 담고 있다. 이 전쟁 혐오의 담론은 전후의 분노를 그대로 나타낸다. 그것은 전후에 지배적이었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로 담론화되어 유포된다. 한국전쟁이후 1960년대까지 근대화론과 자유주의는 ‘한몸’으로 이해된다.²⁶⁾ 이는 개인주의적이고 실존적인 의미의 자유주의가 아니라 조국근대화에 복무하는 공적 담론으로 전후 지식인들이 자유주의를 선택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시집 『꽃의 소묘』를 거쳐 개작된 시집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에 그러한 정황이 강화된다. 그래도 위험의 증상적 기호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다. 다음 시는 그 공포의 근원을 가늠하게 한다.

처음엔
팔뚝 하나 분질러 놓고
코피 쏟게 하고
자네를 떠나는 모든 자네 體毛,
자네를 떠나는 모든 자네 頭髮,
그 다음은 모가지를 분질러 놓고
허리를 분질러 놓고
발가락 열 개를 다 분질러 놓고,
분질러진 모든 자네 뼈들이

26)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 대중서사학회, 2006, 75쪽.

하나하나 실려 나가면, 허겁지겁
하늘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자네 亂視의 눈알,
그런 눈알,

- 「猩猩이」 전문

ヨコハマ헌병대가지빛검붉은벽돌담을끼고달아나던 ヨコハマ헌병대
헌병軍曹某에게나를 넘겨주고달아나던박승줄로박살내게하고木刀로박살
내게하고浴槽에서氣를絶하게하고달아나던 創氏한일본姓을끓여지고숨이
차서쉽표도못찍고떠어쓰기도까먹고 달아나던식민지반도출신고학생헌병
補ヤスタ某的뒤통수에박힌 눈 개라고부르는인간의두개의 눈 가없어리어
느쪽도동공이없는

- 「處容斷章 3 부 5」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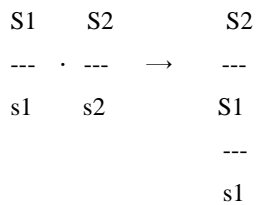
시 「처용단장 3부 5」에서 주체가 해체되는 역사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요코하마(ヨコハマ)’ 헌병대에서 주체는 폭력과 물고문을 당하며 개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다. 조선인인 ‘야스타(ヤスタ某)’의 밑고가 더 주체를 고통스럽게 한다. 주체의 해체과정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식민지 시대 혼란상을 그대로 담고 있다. 주체를 말해주는 기표는 ‘개’이다. 사람으로 불렸던 주체는 이제 짐승의 차원으로 추락하였다. 이때 배신과 폭력이 주체에게 치명적인 정신적 외상이 되어 공포증의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시 「성성이」처럼 몸의 해체로 구체화 된다. 몸이 하나하나 해체되어 떨어져 나가는 이 공포는 일종의 ‘환지공포’라 할 수 있다. 어찌면 이미 없어진 신체에 느끼는 고통일지도 모른다. 그런 측면에서 환상통(phantom limb pain)이기도 하다. 이러한 몸의 해체를 ‘원초적 기표’ S1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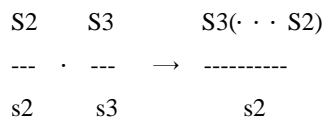
--- (기표 S1 : 눈, 기의 s1: 고문)

s1

식민지 시대 주체가 겪었던 고문의 공포는 주체를 따라 붙어 쫓고 있는 ‘눈’의 이미지와 관련되어 한국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된다. 이 전쟁의 폭력성을 ‘대항적 기표’로 S2로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의 공포는 S2/s2로 기호화되어 원초적 기표와 연상적 관계 속에 다음과 같이 의미화된다.



이때 기표 ‘전쟁(S2)’는 은유화되어 사전적 의미의 기의를 상실하고 ‘고문’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기의로 취하게 된다. 이는 주체가 현실에서 겪는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고문’의 기억 때문에 전쟁 공포증을 앓게 됨을 말한다. 그러므로 주체가 겪고 있는 ‘환지공포’의 증상적 기호는 서정주가 겪은 ‘소리공포’처럼 식민주의와 전쟁 경험이 만들어낸 사후적 병적 징후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과 고문의 공포는 환유적 관계를 형성한다. 이를 제3의 사건과 연결시켜 기호화 하면 다음과 같다.



‘환지공포’에 시달리는 주체는 ‘환상통’이라는 제3의 기표가 ‘전쟁’이라는 제2의 기표와 환유적 대치과정을 겪으면서 전쟁의 기의s2는 유지하고 있으나 ‘환지’의 기의s3는 숨겨진 상태다. 이는 주체가 ‘환지’의 환상이

현실이 아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떨쳐버릴 수 없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즉 주체의 무의식 속에 반복되고 있는 ‘고문’의 공포가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춘수는 몸의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 온전한 신체를 욕망한다. 그 대상이 ‘꽃’이며 최고선으로 탐미주의를 추구한다. 이때 절대미는 ‘자유주의’ 담론과 연결되어 김춘수의 의식을 지배한다. 이는 고문으로부터 탈주하고자 했던 식민지시대 억압된 주체의 무의식을 환상구조로 드러난다. 이는 과거의 기억을 삭제하고 근거 없는 욕망을 주입시키려 했던 사회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전후 현대시에 나타난 주체의 증상적 기호를 살펴봄으로써 전후의 담론화된 이데올로기를 새롭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종래 기존논의는 전후 현대시를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단일 사건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상실과 회복’이라는 상투적 결론에 이르곤 하였다. 한국 현대문학이 여전히 분단과 전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한다면 전쟁은 분단을 초래한 식민시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역사의 연속성을 복원하고 오늘의 문제와 연결할 때 시를 둘러싼 주체의 진면목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패배해서는 안 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상징적 당위성을 갖지만 주체의 경험 속에 자리하고 있는 실존적 의미는 무시되곤 한다. 배제되고 억압된 주체의 욕망이 상실된 것의 복원을 위해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것이 전후 시의 배경이라는 차원에서 서정주와 김춘수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서정주의 경우 전쟁을 거치며 이명공포에 시달린다. 그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피한 공간이 ‘가족’이다. 가족의 복원이

곧 해체된 사회의 회복으로 환상구조를 이룬다. 이는 추방되고 제거되었어야 할 식민적 주체의 생존을 위해 담론화되어 기능했다. 그러므로 서정주가 겪은 소리공포의 증상적 기호는 전후 서정주의 시에서 실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교술적 기의 뒤에 숨어 버렸다.

김춘수의 경우, 주체를 고통스럽게 한 증상적 기호는 몸의 해체에서 오는 공포다. 전쟁과 몸의 해체가 연결되면서 주체는 끊임없이 식민시대 고문의 기억으로 회귀한다. 여기에 갈등과 모순을 일순에 제거하는 담론으로 ‘자유주의’가 개입된다. 전후 시에 나타난 김춘수의 현실 참여적 목소리는 주체가 겪었던 고통의 실존을 거부하고 유희주의적 실험으로 변주된다. 이는 기억의 차단이며 거부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전후 현대시에서 현실성이 배제된 현상의 이면에는 당대 주체의 정치적 무의식이 자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전후 현대시에 자리하고 있는 ‘가족주의’, ‘자유주의’는 식민지 시대 혼종화되고 해체된 주체의 무의식을 환상구조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당대에 스스로를 희생의 중심에 놓고 과거의 행적을 기만하려 했던 사회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후 현대시의 상실과 회복의 기의는 비역사적 무의식의 담론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건우, 「1964년의 담론지형」, 『대중서사연구』 22, 대중서사학회, 2006, 75쪽.
- 김승희, 『코라 기호학과 한국시』,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 김춘수, 「베라 피그넬」, 『김춘수전집3-수필』, 문장, 1983.
- 김학동, 『서정주 평전』, 새문사, 2011.
- 박찬부, 「라캉의 기호적 주체론」, 『기호학연구』 6권, 한국기호학회, 1999, 93쪽, 110-126쪽.
- 박철희, 「통일을 위한 문학-분단의 주제론」, 『자하』 2월호, 상명대학교, 1986, 77쪽.
- _____, 「한국시와 고향상실」, 『굴림문학』 제4호, 굴림문학회, 1995, 133쪽.
- 박통희, 「가족주의 개념의 분할과 경험적 검토」, 『가족과 문화』, 2004, 98-99쪽.
- 서정주, 「미당자서전2」, 『서정주전집5』, 민음사, 1994.
- 손 호머, 『프레더릭 제임슨』, 이택광 역, 문화과학사, 2002.
- 아니 스타브라카키스, 『라캉과 정치』, 이병주 역, 은행나무, 2006.
- 윤여탁, 「한국전쟁후 남북한 시단의 형성과 시세계」, 김은전·김용직 외, 『한국 현대시사의 쟁점』, 시와 시학, 1991.
- 이남호, 「1950년대와 전후세대 시인들의 성격」, 송하춘·이남호 편, 『1950년대의 시인들』, 나남, 1994.
- 이민호, 「전후 ‘전통서정시’의 이접성 연구-이수복·이원섭의 시를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제12호, 시학과언어학회, 2006, 134쪽.
- 이은정, 『현대시학의 두 구도-김춘수와 김수영』, 소명출판, 1999.
- 이재선, 『현대 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 전병준, 「김춘수 시의 변화에서 역사와 사회가 지나는 의미 연구」, 『한국문학과이론비평』 58호, 한국문학과이론비평학회, 2013, 180쪽.
- 정형근, 「서정주 시 연구-판타지와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줄리아 크리스테마, 『세미오티케』, 서민원 역, 동문선, 2005.
- 최동호, 「1950년대의 시적 흐름과 정신사적 의의」, 김윤식·김우중 외, 『한국현대 문학사』, 현대문학, 1995.

A study on the political unconsciousness and symbolic subject expressed in the contemporary poem in the postwar period

Lee, Min-h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poem in the postwar achieved quantitative achievements with two signified of 'loss and restoration.' But, heterogeneous features in the contemporary poem in the post war period have not been properly.

The signifiers that are repeatedly represented in the contemporary poem in the postwar include splitting, fear and Utopian desire of the subject. Ultimately, it requires structuralization of unconsciousness. And, traumatic signifiers of a war require semiotic practices on the creation of meaning instead of seeking meaning of those signifiers. Thus,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mporary problem which the poetic subject shares with readers together with the format analysis of texts. In addition, the study examined personal history, family structure, social and cultural symbolic order, political unconsciousness and personal unconsciousness at the same time.

The subject of the postwar is 'desiring subject. And, it forms annulations with destiny wandering in an endless labyrinth in search for 'a lost object (objet a).' In this point, the lost object is recorded in the unconsciousness. Therefore, it is revealed if any replacement phenomenon in terms of meaning is sought. The postwar ideology can be said as a 'symptom sign' as a fear adding to the subject. In the first signifying process, a signifier 'colonialism' and another signifier 'war' are revealed in the process of metaphorical replacement process, and the second signifying process is demonstrated by a metonymic substitution between

a signifier ‘war’ and another signifier ‘postwar ideology.’

For Seo, Jeong-ju, the symptom sign as ‘fear of sound’ and For Kim, Chun-su, the symptom sign as ‘fear of phantom limb pain’ is expressed by the signifying process of two signifiers of loss of the subject as ‘colonialism’ and ‘war’ that must be premise of the contemporary poem in the past war period. The threat for expulsion which the subject suffer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was connected to the sorrow and ugliness of the Korean War in related to the images of sorrow and ugliness. Therefore, symptom sign of ‘fear of sound’ for the subject is an ex post pathological sign which experiences of colonial life and war created.

‘Familism’ and ‘Liberalism’ in the poem of Seo, Jeong-ju and Kim, Chun-su in the postwar period shows the unconsciousness of contaminated subject and the dissolved subject in the colonial period as annulations. It reflects the social ideology to put self at the center of sacrifice in order to deceive past behaviors. Therefore, the signified of loss and restoration of the contemporary poem in the postwar is a narrative of unhistorical unconsciousness that was impaired by a narrative of familism and liberalism.

Key Word : desiring subject, objet a, unconsciousness, symptom sign, colonialism, war, fear of sound, fear of phantom limb pain, familism, liberalism

투고일 : 2014.08.15 / 심사일 : 2014.09.01 / 심사완료일 : 2014.09.12